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 대한 研究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永河·陸相元

The Study on the 「Sun Gi Il Il Bun Wi Sa Si (順氣一日分爲四時)」 of the 「Young Chu(靈樞)」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Kim YoungHa·Ruk S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translates 「Sun Gi Il Il Bun Wi Sa Si」 in the 「Young Chu(靈樞)」 as a modern words because it is hard to understand which was written by classical words.

We revised the original text with the 7 other classic books and classified annotations of the 6 annotated books according to the similar contents. We classified this volume by 3 chapters, and added Hangeul suffixes to the original text.

The Five types of changes(五變) in the second chapter is meaning to the mutual relationships among the Five viscera and Color, Time, Day, Note, Taste. The word order of contents in the second chapter must be unified follow the Color, Time, Day, Note, Tastes. The Five types of changes in the third chapter must be revise the Five types of diseases(五病) on the bases of the 「You Kyoung(類經)」.

Key Words : Weather changes of the four season(四時之氣), Five types of changes(五變), Five shu points(五輸穴), Source point(原穴)

I. 緒論

「順氣一日分爲四時」는 「靈樞」에는 卷七 第四十四에 있고, 「甲乙經」에는 卷六 「內外形診老壯肥瘦病且慧夜甚大論第六」에 一章의 내용이,

卷一 「五臟變驗第二」에 二章과 三章의 내용이 있으며, 「太素」에는 卷十一 「變輸」에 二章과 三章의 내용이 있고, 「類經」에는 卷十四 「疾病類二十三」중 「病氣一日分四時」에 一章이, 卷二十 「鍼刺類」중 「五變五輸刺應五時十七」에 二章과 三章의 내용이 각각 編述되어 있다.

本篇은, 대부분의 疾病이 아침과 한낮에는 症

* 교신저자: 陸相元,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63-290-1565

狀이 가볍고 저녁과 밤에甚해지는 이유를 一年이 春夏秋冬 四季節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人體도 一日 陽氣出入의 運行이 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一日에 運行하는 人體의 氣가 一年 四季節 氣의 運行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順氣一日分爲四時’라고 篇名하였다.

本篇은 의미상 三章으로 나눌 수 있는데, 第一章은 人體의 하루의 陽氣運行이 四季節의 氣의 변화와 상응하여 春, 夏에 해당하는 아침과 낮에는 症狀이 가볍고 秋, 冬에 해당하는 저녁과 밤에는 증상이甚하며, 이러한 四時의 氣에 應하지 않는 병은 臟이 홀로 그 病을 담당한다고 서술하였고, 第二章은 五臟에 상응하는 色, 時, 音, 味 즉, 五變에 대하여, 第三章은 五變과 五輸穴의 상응관계와 病症 및 原穴의 배합에 대하여 論술하고 있다. 이것은 한의학의 生理病理 등 기초이론 정립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原文이 古文으로 되어있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板本마다 다른 글자가 있으며 각 注釋家들의 見解差異가 많으므로, 여러 板本을 대조하여 校勘하고, 各家의 注釋을 比較·考察하여 가장 알맞은 注釋을 바탕으로 國譯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밝혀내고자 본 論文에 着手하였다.

마. 較註는 <表. 2>의 注釋書에서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모았으며, 모든 注釋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중심으로 國譯하고, 그 注釋의 原文들은 脚註로 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直譯은 原文의 文法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사. 意譯은 함축된 뜻까지 이해되도록 各家의 注釋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해석하였다.

아. 본 연구에 사용한 부호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 引用篇과 論文에 ‘『』’, 로 표기하였으며, 脚註는 ‘1), 2), 3)’의 一連番號로 표기하였고, 較註과정에서 중점적으로 翻譯한 注釋에 ‘●’로 표시하였다.

番號	書名	略稱
1	難經	難經
2	黃帝針灸甲乙經	甲乙
3	備急千金要方	千金
4	黃帝內經太素	太素
5	類經	類經
6	黃帝內經靈樞 校注語譯	明繡谷書林周曰校 重刊本 日本田中清左衛門 本
7		周本 日刻本

표 1. 校勘에 사용된 書籍 및 略稱

II. 연구방법 및 자료

본 편은 내용별로 3章으로 나누었고 原文과 各家의 注釋에는 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吐를 달았으며, 校勘 字句解 較註 考察 直譯 意譯 結語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聚珍倣宋版印本の『黃帝內經靈樞』를 底本으로 하였고, 章節의 分類는 任의 『黃帝內經章句索引』을 중심으로 景岳의 『類經』과 山東中醫學院의 『校釋』등을 참고 하였다.

나. 懸吐는 前래의 方式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 校勘에 인용한 書目은 <表. 1>과 같다.

라.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합당한 音과 訓을 택하였다.

番號	註釋家	時代	書目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 注證發微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岳
4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5	陳璧疏鄭卓人	1962	靈樞白話解	白話
6	河北醫學院	1982	靈樞經校釋	校釋

표 2. 較註에 사용된 書籍 및 略稱

Ⅲ. 本 論

제 1 장 病氣一日分四時

【原文】

黃帝曰 夫百病之所始生者 必起于燥溼寒暑風雨陰陽喜怒飲食居處^{하야} 氣合而有形⁽¹⁾ 하고 得⁽²⁾藏而有名^{하니} 余知其然也^라 夫百病者⁽¹⁾가 多以旦慧⁽³⁾晝安 하고 夕加夜甚^{하니} 何也^오 岐伯이 曰四時之氣使然^나이다 黃帝曰 願聞四時之氣^{하노이다} 岐伯이 曰春生夏長 秋收冬藏은 是氣之常也^요 人亦應^라 以一日分爲四時⁽²⁾ 하면 朝則爲春⁽³⁾ 이요 日中⁽⁴⁾爲夏^요 日入爲秋^요 夜半爲冬⁽⁴⁾이니 朝則人氣始生^{하야} 病氣衰 故로 旦慧^요 日中⁽⁵⁾엔 人氣長^{하고} 長則勝邪 故로 安^{이요} 夕則人氣始衰^{하야} 邪氣始生 故로 加^오 夜半엔 人氣入藏^{하야} 邪氣獨居於身 故로 甚^也니이다

【校勘】

- 1) 夫百病者：『甲乙經』卷六第六에는 ‘夫病者’로 되어 있다.
- 2) 以一日分爲四時：『甲乙經』卷六第六에는 ‘以一日一夜 分爲四時之氣’로 되어 있다.
- 3) 朝則爲春：『甲乙經』卷六第六에는 이 ‘朝爲春’으로 되어 있다.
- 4) 夜半爲冬：『甲乙經』卷六第六에는 ‘夜爲冬’으로 되어 있다.
- 5) 日中：『甲乙經』卷六第六에는 ‘日中則’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形：형상 형. 病의 형태를 이룬다는 뜻.
- (2) 得：合也, 遭逢, 遇到. 만날 득.
- (3) 慧：癒也. 병나을 혜. 病情의 緩和와 好轉을 의미한다.
- (4) 日中：正午, 한 낮.

【較註】

【1】夫百病之所始生者 必起于燥溼寒暑風雨陰

陽喜怒飲食居處：

馬·景岳·張 등은 “사람의 모든 病은 內因·外因의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으니, 燥濕 寒暑 風雨는 天地의 六氣에서 오는 外因이고, 陰陽失調 喜怒動搖 飲食不節 居處不適은 사람의 恒常性失調로 오는 內因이다.”¹⁾라고 하였다.

【2】氣合而有形 得藏而有名：

馬는 “邪氣가 臟에 上합하여 病이 형성되고, 그 분류된 臟을 만나므로 病名이 구별된다.”²⁾하였고, 景岳은 “氣合而有形은 脈證으로 알 수 있고, ‘得臟而有名’은 表裏로 살필 수 있다.”³⁾하였으며, 張은 “燥濕風雨寒暑는 밖으로 天의 六氣에 기인하니 氣가 有形에 合하여 病이 발생하되 人氣의 生長에 의하여 덜 하거나 편안해진다. 대개 六淫의 邪氣는 外部에서 形體와 上합하여 病이 형성되는 것이다. 陰陽 喜怒 飲食 居處는 안으로 人體의 失調에 기인하니 五臟을 만나서 病名이 있는 것이니, 가령, 기쁨에 傷하면 心과 만나서 心病이 되고, 怒에 傷하면 肝과 만나서 肝病이 되고, 슬픔에 傷하면 肺와 만나서 肺病이 되고, 두려움에 傷하면 腎과 만나서 腎病이 되고, 飲食에 傷하면 脾胃와 만나서 脾胃의 病이 된다. 이것은 반드시 臟氣가 勝하는 시기에 희생하니, 대개 內因의 病은 臟과 만나서 臟에 病이 발생하는 것이다.”⁴⁾라고 하였고, 校釋은 “氣合은 邪氣가 人體를 犯하는 것을, ‘有形’은 脈證變化의 形迹을, ‘得臟’은 邪氣가 臟에 침입하는 것을, ‘有名’

- 1) ○馬: 夫百病必始於外感內傷이라 故로 燥濕寒暑風雨者는 外感也요 陰陽喜怒飲食居處者는 內傷也라 ○景岳: 燥濕寒暑風雨는 外感也요 陰陽喜怒飲食居處는 內傷也라 ●張: 人之百病은 不出於外內二因이니 燥濕風雨寒暑는 外因於天地六氣요 陽喜怒飲食居處는 內因於人之失調라
- 2) ○馬: 邪氣相合於藏而病形成하고 得其分藏而病名別이라
- 3) ○景岳: 氣合而有形은 脈證可據也요 得藏而有名은 表裏可察也라
- 4) ○張: 燥濕風雨寒暑는 外因於天之六氣니 氣合於有形而爲病호대 借人氣之生長以慧安이라 蓋六淫之邪는 外合於形而病形也라 陰陽喜怒飲食居處는 內因於人之失調니 得之於藏而有病名하니 如傷喜則得之於心而有心病矣요 傷怒則得之於肝而有肝病矣요 傷悲則得之於肺而有肺病矣요 傷恐則得之於腎而有腎病矣요 傷於飲食則得之脾胃而有脾胃之病矣라 是必以臟氣之所勝時者起하니 蓋內因之病은 得之於藏而病藏也라

은 각종 질병이 모두 일정한 명칭이 있는 것을 말한다.5)”고 하였다.

[3] 人亦應之以一日分爲四時

景岳은 “天地의 交流와 四時의 順序는 오직 陰陽升降으로 이루어진다. 子時 이후는 태양이 좌측으로 상승하니 상승하면 陽이 되며, 午時 이후는 태양이 우측으로 하강하니 하강하면 陰이 된다. 크게는 一年, 작게는 一日이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루도 四時로 나눈 것이다.6)”라고 하였고, 張은 “春生 夏長 秋收 冬藏은 一年의 四時니 天地의 陰陽이 出入하는 것이고, 朝는 봄, 日中은 여름, 日入은 가을, 夜半은 겨울이 되는 것은 一日의 四時니 人氣의 陰陽이 出入하는 것이다.7)”라고 하였다.

[4] 朝則人氣始生 病氣衰 故旦慧

馬는 “人氣는 衛氣이고 衛氣는 陽氣이므로, 아침이면 눈에서 나와 足太陽膀胱經의 睛明穴로부터 手足陽經으로 行하여 그 氣가 아침에 始生한다. 그러므로 病氣는 邪氣이지만 邪氣가 인체의 衛氣를 對敵하지 못하여 아침에는 상쾌하고 밝은 것이다.8)”라고 하였고, 景岳은 “아침에는 太陽이 寅卯에 있어서 아래로부터 상승하는데, 사람도 이에 응하여 陽氣가 바로 상승하므로 病氣가 쇠퇴하여 아침에는 병이 가벼운 것이다.9)”라고 하였다.

[5] 日中人氣長 長則勝邪 故安

馬는 “日中에는 衛氣가 점차 자라서 오히려

邪氣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便安할 수 있다.10)”고 하였고, 景岳은 “日中에는 太陽이 巳午에 있어서 東에서부터 中央으로 가는데, 사람도 이에 응하여 陽氣가 가장 왕성하므로, 邪氣를 이길 수 있어서 낮에는 편안한 것이다.11)”라고 하였다.

[6] 夕則人氣始衰 邪氣始生 故加

馬는 “저녁에는 陽經을 운행하던 衛氣가 周游하고 陰經으로 들어가려 하여 그 氣가 衰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邪氣가 衛氣를 勝하고 始生한다. 그러므로 病이 심해지는 것이다.12)”라고 하였고, 景岳은 “저녁에는 太陽이 申酉에 있어서 中央으로부터 기우는데, 사람도 이에 응하여 陽氣가 衰하기 시작하므로, 邪氣가 漸次 盛하여 저녁에는 加重되는 것이다.13)”라고 하였다.

[7] 夜半人氣入藏 邪氣獨居於身 故甚也

馬는 “夜半에는 衛氣가 陰經을 운행하여 모두 臟으로 들어가고 邪氣만이 몸에 기거하므로, 몸이 지탱을 하지 못하여 病이 심해지는 것이다.14)”라고 하였고, 景岳은 “夜半에는 太陽이 戌亥에 있어서 위로부터 下降하는데, 사람도 그것에 응하여 陽氣는 伏藏하고 邪氣는 盛하므로, 야간에는 病이 심한 것이다. 대개 邪氣의 輕重은 正氣의 盛衰에 의해 좌우된다. 正氣는 陽氣이므로 상승하면 陽을 따르고 陽을 따르면 生하며, 하강하면 陰을 따르고 陰을 따르면 死하니 天과 人의 氣는 하나일 따름이다.15)”라고 하였다.

5) ○校釋: 氣승은 指邪氣犯人이요 有形은 指有脈證變化的形迹이요 得藏은 指邪氣入藏이요 有名은 指各種疾病都有一定的名稱이라
6) ○景岳: 天地之交와 四時之序는 惟陰陽升降而盡之矣라 自子之後는 太陽이 從左而升하니 升則爲陽이요 自午之後는 太陽이 從右而降하니 降則爲陰이라 大而一歲와 小而一日이 無不皆然이라 故로 一日亦分四時也라
7) ○張: 春生夏長秋收冬藏은 一歲之四時니 天地之陰陽出入也요 朝則爲春日中爲夏日入爲秋夜半爲冬은 一日之四時니 人氣之陰陽出入也라
8) ○馬: 人氣者는 衛氣也요 衛氣는 爲陽氣니 朝則出于目하고 自足太陽經之睛明穴로 以行于手足陽經 하야 其氣始生于朝라 故로 病氣者는 邪氣也나 邪氣不能敵人衛氣하야 而旦時乃爽慧焉이라
9) ○景岳: 朝時엔 太陽이 在寅卯하야 自下而上할새 在人應之하야 陽氣正升 故로 病氣衰而旦慧라

10) ○馬: 日中엔 則衛氣漸長하야 而猶能勝邪 故로 能安이라
11) ○景岳: 日中엔 太陽이 在巳午하야 自東而中할새 在人應之하야 陽氣正盛 故로 能勝邪而晝安이라
12) ○馬: 夕엔 則衛氣行于陽經者가 周而將入於陰經하야 其氣始衰하니 彼邪氣勝衛氣而始生 故로 病加라
13) ○景岳: 夕時엔 太陽이 在申酉하야 由中而仄할새 在人應之하야 陽氣始衰 故로 邪氣漸盛而暮加重이라
14) ○馬: 夜半엔 則衛氣行于陰經하야 全入于臟하고 彼邪氣獨居于身 故로 身不能支而病甚也라
15) ○景岳: 夜半엔 太陽이 在戌亥하야 自上而降할새 在人應之하야 陽氣伏藏하고 邪氣正盛 故로 夜則甚이라 蓋邪氣之輕重은 由於正氣之盛衰라 正氣者는 陽氣也나 升則從陽하고 從陽則生하야 降則從陰하고 從陰則死하니 天人之氣는 一而已矣라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무릇 모든 병이 시생하는 것은 반드시 燥濕 寒暑 風雨 陰陽 喜怒 飲食 居處에서 야기되어 邪氣가 합쳐져서 病이 形成되고 臟에서 病이 되어 病名이 있는 것인데, 내가 그 까닭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대부분 아침에 가볍고 낮에 편안하고 저녁에 가중하고 밤에 심하니 어째서입니까?” 岐伯이 말하길, “四時의 기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四時의 氣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말하길 “봄에 만물이 始生하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수렴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氣의 常道요, 사람 또한 여기에 相應합니다. 하루를 나누어서 사계절로 나누면 아침은 봄, 한 낮은 여름, 해 질 무렵은 가을, 한 밤은 겨울이 되니, 아침에는 인체의 氣가 시생하여 病氣가 衰退하기 때문에 해 뜰 무렵에는 몸이 가볍고, 한 낮에는 인체의 氣가 長盛하고 氣가 長盛하면 邪氣를 勝하기 때문에 몸이 便安하고, 저녁에는 인체의 氣가 衰退하기 시작하여 邪氣가 시생하기 때문에 加重하고, 한 밤에는 인체의 氣가 臟으로 들어가서 邪氣만이 홀로 몸에 머물기 때문에 病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原文】

黃帝曰 其時有反者^는 何也^오 岐伯曰 是不應四時之氣^는 藏獨主其病者¹⁾ 是必以藏氣之所不勝時者^는 甚^{하고} 以其所勝時者^는 起⁽¹⁾ 也^니 黃帝曰 治之^는 奈何^오 岐伯曰 順天之時^면 而病可與期^니 順者爲工⁽²⁾ 逆者爲粗⁽³⁾ 也^니 矣

【校勘】

- 1) 藏獨主其病者：『周本』에는 ‘藏獨生甚病者’로 되어있다.
- 2) 逆者爲粗：『類經』卷十四 「疾病類」에는 ‘逆者爲麤’로 되어있다.

【字句解】

- (1) 起：生動, 살아 활동할 기.

(2) 工：上工, 上醫를 일컫음.

(3) 粗：疏也, 物不精. 거칠 추, 下醫를 일컫음. 麤와 通用.

【較註】

[8] 其時有反者 何也

馬·景岳校釋은 “이는 ‘아침에 가볍고 낮에 편안하고 저녁에 더하고 밤에 심하다’는 이론에 따르지 않는 病이 있는데, 오직 上工만이 그 時期에 순응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黃帝가 아침과 낮에 병이 더하거나 심하며, 저녁과 밤에 가볍거나 편안한 경우가 있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다.¹⁶⁾”라고 하였다.

[9] 是不應四時之氣 藏獨主其病者

馬·景岳은 “이는 곧 臟氣가 홀로 그 病을 主管하여 ‘하루를 나누어 四時의 氣가 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¹⁷⁾”라고 하였고 張은 “이는 陰陽 喜怒 飲食 居處로 인한 病은 五臟이 그 病을 홀로 主管하기 때문에 반드시 臟氣가 이기지 못하는 시기에 甚하고 이기는 시기에 낫는 것이다.¹⁸⁾”고 하였다.

[10] 是必以藏氣之所不勝時者甚

馬·景岳은 “예를 들면 脾病은 아침의 木氣를 이기지 못하고, 肺病은 낮의 火氣를 이기지 못하고, 肝病은 저녁의 金氣를 이기지 못하고, 心病은 밤의 水氣를 이기지 못하므로 病이 더하기도 심하기도 하는 것이다.¹⁹⁾”라고 하였고, 張·校釋白

16) ●馬: 此는 言病有不應旦慧晝安夕加夜甚之由로대 而惟上工則能順其時也라. 帝疑病有旦晝或加或甚 而夕夜或慧或安者라 ○景岳: 反은 爲不應前說也라 ○校釋: 其時有反者는 指疾病的輕重變化가 與前文提到的旦慧晝安夕加夜甚의 規律으로 不同이라

17) ●馬: 此는 乃臟氣獨主其病하야 而不應一日分爲四時之氣也라 ○景岳: 不應四時之氣者는 藏氣獨主其病이니 有所勝所不勝也라

18) ○張: 此는 言因於陰陽喜怒飲食居處者는 五臟獨主其病하니 是必以臟氣之所不勝時者甚하고 以其所勝時者起也라

19) ●馬: 如脾病은 不能勝旦之木하고 肺病은 不能勝晝之火하고 肝病은 不能勝夕之金하고 心病은 不能勝夜之水라 故로 爲加爲甚也라 ○景岳: 所不勝者는 如脾病畏木 肺病畏火 腎病畏土 肝病畏金 心病畏水니 值其時日 故로 病必甚也라

話解는 “예를 들면 肝病은 辛酉時의 金氣를 이기지 못하고, 心病은 亥子時의 水氣를 이기지 못하고, 脾病은 寅卯時의 木氣를 이기지 못하고, 肺病은 巳午時의 火氣를 이기지 못하고, 腎病은 辰戌丑未時의 土氣를 이기지 못하니, 이것이 臟氣가 이기지 못하는 때에 甚해지는 것이다.”²⁰⁾라고 하였다.

[11] 以其所勝時者起也

馬·張·校釋白話解는 “이는 臟氣의 五行이 時日의 五行을 克制할 수 있으므로 질병이 輕減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 肺氣는 金에 屬하니 木에 屬하는 寅卯의 時를 勝할 수 있고, 腎氣는 水에 屬하니 火에 屬하는 巳午의 時를 勝할 수 있고, 心氣는 火에 屬하니 金에 屬하는 申酉의 時를 勝할 수 있고, 脾는 土에 屬하니 水에 屬하는 亥子의 時를 勝할 수 있음과 같은 것이다.”²¹⁾라고 하였고, 景岳은 “所勝時란 者는 가

령 脾病은 火土를, 肺病은 土金을, 腎病은 金水를, 肝病은 水木을, 心病은 木火를 좋아함과 같으니, 그 時日을 만나면 病이 당연히 나아지는 것이다.”²²⁾라고 하였다.

[12] 順天之時 而病可與期

馬·白話解는 “치료하는 者는 그 天時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하니, 가령 脾病은 아침의 木氣를 勝하지 못하니 脾를 補하고 肝을 瀉하고, 肺病은 낮의 火氣를 勝하지 못하니 肺를 補하고 心을 瀉하고, 肝病은 저녁의 金氣를 勝하지 못하니 肝을 補하고 肺를 瀉하고, 心病은 밤의 水氣를 勝하지 못하니 心을 補하고 腎을 瀉하면 이 병은 호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²³⁾라고 하였고, 景岳張은 “天의 時氣에 순응하는 자는 時氣의 盛衰로 陰陽의 虛實을 알기 때문에 病의 吉凶을 期約할 수 있는 것이다.”²⁴⁾라고 하였고, 校釋은 “治療時에 日時의 五行配屬과 病이 발생한 內臟의 五行配屬關係를 근거로 補瀉를 施行하면 時日이 臟을 克하는 것을 避할 수 있으니, 예를 들면 脾病은 木에 屬하는 甲乙日 또는 寅卯時에 補土瀉木의 방법을 사용하고, 肺病은 火에 屬하는 丙丁日 또는 巳午時에 補金瀉火의 방법을 選擇하는 방법 등이 곧 順天之時다.”²⁵⁾라고 하였다.

20) ●張: 如肝病은 不能勝辛酉時之金氣하고 心病은 不能勝亥子時之水氣하고 脾病은 不能勝寅卯時之木氣하고 肺病은 不能勝巳午時之火氣하고 腎病은 不能勝辰戌丑未時之土氣니 是臟氣之所不勝時者甚也라 ○校釋: 臟氣之所不勝時는 指受病의 內臟被時日所克이니 因爲內臟分別具有一定的五行屬性하고 時日도 也分別具有五行的屬性이어늘 遇到時日의 五行屬성이 克制內臟의 五行屬性時하면 病情就要加重이라 五臟分配五行하면 肝屬木 心屬火 脾屬土 肺屬金 腎屬水요 代表日의 天干配五行하면 甲乙屬木 丙丁屬火 戊己屬土 庚申屬金 壬癸屬水요 代表時의 地支配五行하면 寅卯屬木 巳午屬火 辰戌丑未屬土 辛酉屬金 亥子屬水라 ○白話解: 臟氣所不勝은 就是指根據五行相克的規律하야 臟氣의 五行이 被時日의 五行所克而言이라 例如 脾屬土하고 土爲木所克이니 脾病은 畏屬木의 甲乙或寅卯의 時辰이요 肺屬金하고 金爲火所克이니 肺病은 畏屬火의 丙丁或巳午의 時辰이요 腎屬水하고 水爲土所克이니 腎病은 畏屬土의 戊己或辰戌丑未의 時辰이요 肝屬木하고 木爲金所克이니 肝病은 畏屬金의 庚申或辛酉의 時辰이요 心屬火하고 火爲水所克이니 心病은 畏屬水의 壬癸或亥子의 時辰等等이라

21) ○馬: 若人之臟氣 能勝時之氣하니 如肺氣能勝旦之木하고 腎氣能勝晝之火하고 心氣能勝夕之金하고 脾氣能勝夜之水라 故로 至於慧且安也라 ○張: 如肝病은 至辰戌丑未時而起하고 心病은 至辛酉時而起하고 脾病은 至亥子時而起하고 肺病은 至寅卯時而起하고 腎病은 至巳午時而起니 以其所勝時而起也라 ○校釋: 受病內臟이 克制所逢時日하면 疾病은 則趨向輕減하니 如肝病은 逢戌己日和辰戌丑未의 時辰(木克土)이면 則輕이라 ●白話解: 這是指 臟氣의 五行이 能克制時日의 五行하니 因而使疾病能有起色이라 例如肺氣는 屬金하니 能勝屬木의 寅卯等時辰하고

腎氣는 屬水하니 能勝屬火의 巳午等時辰하고 心氣는 屬火하니 能勝屬金의 申酉等時辰하고 脾氣는 屬土하니 能勝屬水의 亥子等時辰之類라

22) ○景岳: 所勝時者는 如脾病喜火土 肺病喜土金 腎病喜金水 肝病喜水木 心病喜木火니 值其時日 故로 病當起也라

23) ●馬: 治之者는 能順其時니 如脾病은 不能勝旦之木하니 則補脾而瀉肝하고 肺病은 不能勝晝之火하니 則補肺而瀉心하고 肝病은 不能勝夕之金하니 則補肝而瀉肺하고 心病은 不能勝夜之水하니 則補心而瀉腎하면 斯病可與期也라 ○白話解: 順天之時는 就是指能够順着時氣의 盛衰하야 根據臟腑虛實하야 而進行適當의 補瀉調治라 如脾病은 不能勝旦之木하니 則補脾而瀉肝하고 肺病은 不能勝晝之火하니 則補肺而瀉心하고 肝病은 不能勝夕之金하니 則補肝而瀉肺하고 心病은 不能勝夜之水하니 則補心而瀉腎等이라

24) ●景岳: 順天之時者는 因時氣之盛衰하야 知陰陽之虛實 故로 病之吉凶可期라 ○張: 良工은 順天之時하야 以調養五行之氣하니 則病之起를 可與之期이니와 若不知天地陰陽四時五行之理者면 不可以爲工矣라

25) ○校釋: 治療時에 能够根據日時의 五行配屬與受病內臟의 五行配屬關係하야 施以補瀉하면 以避免時日克臟이니 如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그 때로 相反된 病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岐伯이 말하길, 이는 四時의 氣에 應하지 않고 臟이 홀로 그 病을 主管하는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그 臟氣가 不勝하는 때에는 病이 甚해지고, 勝하는 때에는 病이 나아집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자연계의 時氣에 순응하면 病의 길흉을 기약할 수 있으니, 순응하는 者는 훌륭한 醫師가 되고 거스르는 者는 庸劣한 醫師가 됩니다.

제 2 장 五變五輸刺應五時

【原文】

黃帝曰 善^{하다} 余聞刺有五變^{하여} 以主五輸¹⁾⁽¹⁾ 라하니 願聞其數²⁾ 라노이다 岐伯이 曰人有五藏^{하고} 五藏²⁾ 有五變^{하고} 五變³⁾ 有五輸^라 故^로 五五二十五輸^가 以應五時^니 이나

【校勘】

- 1) 黃帝曰善 余聞刺有五變 以主五輸 : 『甲乙經』 卷一 第二에는 ‘黃帝問曰 五臟五輸’로 되어 있다.
- 2) 五藏 : 『太素』卷十一 變輸篇과 『甲乙經』卷一 第二에는 모두 ‘藏’으로 되어 있다.
- 3) 五變 : 『太素』卷十一 變輸篇과 『甲乙經』卷一 第二에는 모두 ‘變’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輸 : 經穴, 신체의 맥락과 금소 수.
- (2) 數 : 理也, 이치 수. 여기서는 사물의 속성과 그 상호관계의 도리를 말한다.

【較註】

[1] 人有五藏 五藏有五變 五變有五輸 故五五

脾病則于屬木의 甲乙日或寅卯時에 采補土瀉木의 方法하고 肺病則于屬火의 丙丁日或巳午時에 采取補金瀉火의 方法들이 卽爲順天之時라

二十五輸 以應五時

太素·馬·校釋에는 “이는 五臟에는 五變이 있고 五變은 五輸에서 주관한다는 것을 상세히 말한 것이다. 方法이 같지 않음이 있는 것을 變이라 한다. 五輸는 곧 井榮輸經合이니 五臟을 刺針하는데 五變이 있는 것은 五臟에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다.”²⁶⁾”라고 하였고, 張은 “‘五臟有五變’이라는 것은 五時, 五行, 五音, 五색의 變異가 있다는 것이고, ‘五變有五輸’라는 것은 하나의 臟중에서 春刺榮 夏刺輸 長夏刺經 秋刺合 冬刺井의 五輸가 있어서 5 곱하기 5의 25輸가 있어 五시에 應하는 것이다.”²⁷⁾”라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좋습니다. 내가 듣기에 刺法에는 五變이 있어서 五輸를 주관한다 하니, 그 이치를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인체에는 五臟이 있고 五臟에는 五變이 있고 五變에는 五輸가 있으므로, 5 곱하기 5하여 25輸가 五시에 應하는 것입니다.

【原文】

黃帝曰 願聞五變^{하노이다} 岐伯이 曰¹⁾ 肝은 爲牡藏¹⁾ 이니 其色靑^{이요} 其時春^{이요} 其音角^{이요} 其味酸^{이요} 其日甲乙²⁾ 이며 心은 爲牡藏^{이니} 其色赤^{이요} 其時夏^{이요} 其日丙丁^{이요} 其音徵^{이요} 其味苦^며 脾는 爲牝藏²⁾ 이니 其色黃^{이요}

26) ○太素: 五時は 謂春夏長夏秋冬也라 ●馬: 此는 詳言刺五藏者는 有五變하고 五變은 主于五輸也라 法有不同之謂變이라 五輸者는 卽井榮輸經合也라 刺五藏而有五變者는 以五藏有不同也라 ○校釋: 五變은 五種變化라 本篇前面에 提到人有五臟五臟有五變하야 似指每一臟器與色時日音味五者之間의 關係라 下文在論及與五輸의 關係時에 又僅提到臟色時音味五個方面하니 卽將臟本身作爲五變之一 而未提及日의 問題하야 前後文不同이라 結合原文提到의 五輸分主五變의 針刺法則하야 綜合起來看하면 以疾病의 表現突出在臟在色澤在時(時間時甚)在音在味(飲食)這幾個方面을 稱爲五變爲妥라 五輸은 指井榮輸經合五類輸穴이요 五時は 指春夏長夏秋冬五季而言이라

27) ○張: 此는 言五藏之氣應天之四時五音五색五味也라 五藏有五變者는 有五時五行五音五색之變異요 五變有五輸者는 一藏之中에 有春刺榮 夏刺輸 長夏刺經 秋刺合 冬刺井之五輸라 故로 五五有二十五輸하야 以應五時也라

요 其時長夏요 其日戊己요 其音宮이요 其味甘이며 肺는 爲牝藏이니 其色白이요 其音商이요 其時秋요 其日庚辛³⁾이요 其味辛이며 腎은 爲牝藏이니 其色黑이요 其時冬이요 其日壬癸요 其音羽요 其味鹹이니 是爲五變이니이다

【校勘】

- 1) 黃帝曰願問五變 岐伯曰：『甲乙經』卷一第二에는 이 10字가 없다.
- 2) 其音角 其味酸 其日甲乙：『甲乙經』卷一第二에는 “其日甲乙 其音角 其味酸”의 순서로 되어있다.
- 3) 其音商 其時秋 其日庚辛：『甲乙經』卷一第二에는 “其時秋 其日庚辛 其音商”의 순서로 되어있다.

【字句解】

- (1) 牝藏：陽의 속성을 지닌 臟器. 牡; 수컷 무.
- (2) 牝藏：陰의 속성을 지닌 臟器. 牝; 암컷 빈.

【校註】

[2] 肝爲牡藏 其色青 其時春 …… 腎爲牝藏 其色黑 其時冬 其日壬癸 其音羽 其味鹹 是爲五變

太素馬·景岳張·白話解는 “肝은 木에 속하여 陰中의 少陽이니 牡藏이라 하고, 心은 火에 속하여 陽中의 太陽이니 牡藏이라 하고, 脾는 土에 속하여 陰中의 至陰이니 牝藏이라 하고, 肺는 金에 속하여 陽中의 少陰이니 牝藏이라 하고, 腎은 水에 속하여 陰中의 太陰이니 牝藏이라 한다. 살펴 보면 五臟을 五行에 配合시킬때 오직 肝心만 牡藏이 되고 脾肺腎은 모두 牝藏이 되는데, 이는 대개 木火는 陽이고 土金水는 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28) ○太素: 肝心은 屬於木火 故로 爲牡藏이요 脾肺腎은 屬於土金水 故로 爲牝藏이라 牝牡五藏五色五時五音五味 故로 有二十五之變也라 ○馬: 肝은 爲陰中之陽이며 心은 爲陽中之陽 故로 皆稱曰牡藏이요 脾는 爲陰中之至陰이며 肺는 爲陽中之陰이며 腎은 爲陰中之陰 故로 皆稱曰牝藏이라 其各藏之日色日時曰音曰味曰日이 不同如此하니 是之謂五變也라 ●景岳: 肝은 屬木하야 爲陰中之少陽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五變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肝은 牡藏이 되니 그 색은 靑色이요 그 때는 春이요 그 음은 角이요 그味는 酸이요 그 日은 甲乙이며, 心은 牡藏이 되니 그 색은 赤이요 그 때는 夏요 그 日은 丙丁이요 그 음은 徵이요 그味는 苦며, 脾는 牝藏이 되니 그 색은 黃이요 그 때는 長夏요 그 때는 戊己요 그 음은 宮이요 그味는 甘이며, 肺는 牝藏이 되니 그 색은 白이요 그 음은 商이요 그 때는 秋요 그 日은 庚辛이요 그味는 辛이며, 腎은 牝藏이 되니 그 색은 黑이요 그 때는 冬이요 그 日은 壬癸요 그 음은 羽이요 그味는 鹹이니, 이것이 五變입니다.

제 3 장 五變五輸治療

【原文】

黃帝曰 以主五輸는 奈何요 藏主冬¹⁾하니 冬刺²⁾井³⁾이요 色主春⁴⁾하니 春刺榮⁴⁾이요 時主夏⁵⁾하니 夏刺榮⁵⁾이요 音主長夏⁶⁾하니 長夏刺經⁶⁾이요 味主秋⁷⁾하니 秋刺合⁷⁾이니 是謂五變以主五輸이니이다

【校勘】

- 1) 藏主冬：『太素』卷十一 變輸篇에는 ‘岐伯曰 藏主冬’으로 되어있다.
- 2) 刺：『千金方』卷二十九 鍼灸上에는 ‘取’로 되어있다.
- 3) 井：『難經七十四難』에는 ‘合’으로 되어있다.
- 4) 榮：『難經七十四難』에는 ‘井’으로 되어있다.
- 5) 輸：『難經七十四難』에는 ‘榮’으로 되어있다.

故로 曰牡藏이요 心은 屬火하야 爲陽中之太陽 故로 曰牡藏이요 脾는 屬土하야 爲陰中之至陰 故로 曰牝藏이요 肺는 屬金하야 爲陽中之少陰 故로 曰牝藏이요 腎은 屬水하야 爲陰中之太陰 故로 曰牝藏이라 按五藏配合五行에 而惟肝心은 爲牡藏이요 脾肺腎은 皆屬牝藏이니 蓋木火爲陽요 土金水皆爲陰也일새라 ○張: 肝屬木하고 心屬火 故로 爲牡藏이요 脾屬土하고 肺屬金하고 腎屬水 故로 爲牝藏이라 ○白話解: 陽性雄의을 叫做牡요 陰性雌의을 叫做牝이니 在五臟之中에 肝心은 爲牡藏이요 脾肺腎은 爲牝藏이라 主要就是以五臟所配合의五行하면 木火爲陽이요 土金水爲陰이니 取類比象하야 以分陰陽而已라

6) 經 : 『難經·七十四難』에는 ‘輪’로 되어있다.

7) 合 : 『難經·七十四難』에는 ‘經’으로 되어있다.

【校註】

〔1〕藏主冬 冬刺井

太素張은 “겨울철에는 萬物을 거두어들이고 저장하므로 五臟은 겨울을 主管한다. 井은 木이 되고 木은 春에 해당되니, 봄철에는 萬物이 생하기 시작하여 마치 우물 속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다. 겨울철에는 만물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여 우물물이 깊은 것과 같으니 우물물이 분출하지 않는데 井穴을 刺針하는 것은 井의 微微함을 刺針하는 것이다.²⁹⁾”라고 하였고, 馬·景岳은 “五臟은 간직함을 주관하니 그 氣가 겨울에 상응하고 井穴의 氣도 깊어서 겨울에 상응한다. 그러므로 무릇 病이 五臟에 있는 자는 마땅히 各經의 井穴을 치료해야 하니, 예컨대 肝은 大敦을, 心은 少衝을 取穴하는 것과 같다.³⁰⁾”고 하였다.

〔2〕色主春 春刺榮

太素張은 “봄철에는 만물이 처음 생하여 아름답고 빛나니 五色이 春을 主管하는 것이다. 榮은 火가 되고 火는 夏에 해당되니, 여름철에는 萬物이 무성하게 자라서 마치 물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다. 봄철에는 萬物이 생하기 시작하여 무성하지 않으니 榮穴을 刺針하는 것은 또한 榮穴의 微微한 것을 刺鍼하는 것이다.³¹⁾”라고 하였고, 馬·景岳은 “五色이 화사하게 피어나니 그 氣가 봄에 상응하고 榮穴도 그 氣가 微微하여 봄에 상응한다. 그러므로 病이 色에 드러나는 자는 마

땅히 各經의 榮穴을 치료해야 하니, 예를 들면 肝은 行間을, 心은 少府를 取穴하는 것과 같다.³²⁾”라고 하였다.

〔3〕時主夏 夏刺輪

太素張은 “여름철에는 萬物이 榮華하여 四時 가운데서 가장 왕성하므로, 五時가 여름을 主管하는 것이다. 輪穴은 土며 土는 長夏에 해당하니, 長夏에는 萬物이 盛極하여 마치 물이 가장 많이 모인 것과 같다. 여름철엔 繁榮하니 왕성함이 極에 이르지 않는데 輪穴에 刺針하는 것은 또한 輪穴의 微微함을 刺針하는 것이다.³³⁾”라고 하였고, 馬·景岳은 “五時は 長養하니 그 氣가 여름에 상응하고 輪穴도 그 氣가 盛하여 여름에 상응한다. 그러므로 무릇 때로 더했다 덜했다 하는 病은 마땅히 各 經絡의 輪穴을 치료해야 하니, 예를 들면 肝은 太衝을, 心은 神門을 取穴하는 것과 같다.³⁴⁾”라고 하였다.

〔4〕音主長夏 長夏刺經

太素張은 “長夏에는 萬物이 繁榮旺盛하고 音律은 四時의 順序에 調和하므로 五音이 長夏를 主管하는 것이다. 經은 金이고 金은 가을에 해당되니 가을철에는 萬物이 점점 衰弱해진다. 長夏에는 萬物이 旺盛하니 아직 衰하지 않았는데 經穴을 刺針하는 것은 또한 經穴의 微微함을 刺針하는 것이다.³⁵⁾”라고 하였고, 馬·景岳은 “音은 長

29) ●太素: 冬時엔 萬物收藏 故로 五藏主冬也라 井은 爲木也요 木은 春也니 春時엔 萬物始生하야 如井中泉水라 冬時엔 萬物始萌하야 如井水深하니 未出而刺之者는 刺井微也라 ○張: 腎者는 主封藏之本이요 藏主冬하니 此는 腎合冬藏之氣也라

30) ●馬: 蓋五藏主於冬 故로 凡病在於藏者는 必取五藏之井이니 如肝取大敦하고 心取少衝之類라 ○景岳: 五藏主藏하니 其氣應冬하고 井之氣深하야 亦應乎冬이라 故로 凡病之在藏者는 當取各經之井穴也라

31) ●太素: 春時엔 萬物初生鮮華 故로 五色主春이라 榮은 火也요 火는 夏也니 夏時엔 萬物榮長하야 如水流溢이라 春時엔 萬物始生하니 未榮而刺之者는 亦刺榮微也라 ○張: 肝主色하고 色主春하니 此는 肝合春生之氣也라

32) ○馬: 色生於春 故로 凡病在於色者는 必取五藏之榮이니 如肝取行間하고 心取少府之類라 ●景岳: 五色蕃華하니 其氣應春하고 榮穴氣微하야 亦應於春이라 故로 凡病見於色者는 當取各經之榮也라

33) ●太素: 夏時엔 萬物榮華하야 四時之勝 故로 五時主夏라 輪는 土也요 土는 長夏也니 長夏之時엔 萬物盛極하야 如水致聚라 夏時엔 榮하니 未盛極而刺之者는 亦刺輪微也라 ○張: 心者는 生之本이요 神之變也니 時主夏는 心合夏長之氣也라

34) ○馬: 時主於夏 故로 凡病時間時甚者는 必取五藏之輪니 如肝取太衝하고 心取神門之類라 ●景岳: 五時は 長養하니 其氣應夏하고 輪穴도 氣盛하야 亦應乎夏라 故로 凡病之時作時止者는 當取各經之輪也라

35) ●太素: 長夏엔 萬物榮盛하고 音律은 和四時之序 故로 五音主於長夏라 經은 金也요 金은 秋也니 秋時엔 萬物將衰라 長夏之時엔 萬物盛하니 而未衰而刺之者는 亦刺經微也라 ○張: 土數는 五요 五者는 音也니 音主長夏는 脾合長夏之氣也라

夏에 主管되니 무릇 音에 存在하는 病은 반드시 五臟의 經穴을 取해야하니 종류이다.”라고 하였고, 馬·景岳은 “五音은 繁盛하니 그 氣가 長夏에 상응하고 經穴도 정히 旺盛하여 또한 長夏에 상응한다. 그러므로 무릇 病이 聲音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各 經의 經穴을 치료해야 하니, 예컨대 肝은 中封을, 心은 靈道를 取穴하는 것과 같다.”³⁶⁾고 하였다.

[5] 味主秋 秋刺合

太素·張은 “가을철에는 萬物이 모두 成熟하고 모든 맛이 아울러 旺盛하므로 五味가 가을을 주관하는 것이다. 습은 水이며 水는 冬에 해당되니, 겨울철에는 萬物이 거두어들여 저장하니 마치 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가을철에는 萬物이 거두어들이니 아직 저장하지 않았는데 습穴을 刺針하는 것은 또한 습穴의 微微함을 刺針하는 것이다.”³⁷⁾라고 하였고, 馬·景岳은 “五味가 成熟하여 五臟을 養育하니 그 氣가 가을에 상응하고 습穴도 氣를 收斂하여 또한 가을에 상응한다. 그러므로 經絡에 울혈이 가득한 자와 病이 胃에 있거나 飲食으로 因하여 內傷이 된 자는 마땅히 各經의 습穴을 치료해야 하니, 예컨대 肝은 曲泉을, 心은 少海를 取穴하는 것과 같다.”³⁸⁾라고 하

었다.

[6] 是謂五變 以主五輸

太素·馬·景岳·張은 “이는 五臟의 氣가 五時의 變化에 상응하여 五輸를 取穴할 때 각각 主管하는 바가 있다. 봄에는 榮穴을, 여름에는 輸穴을, 長夏에는 經穴을, 가을에는 습穴을, 겨울에는 井穴을 刺針하니 모두 子로부터 母氣를 透發하는 것이다.”³⁹⁾라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五輸穴을 주관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길, 五臟은 겨울을 주관하니 겨울에는 井穴을 刺針하고, 五色은 봄을 주관하니 봄에는 榮穴을 刺針하고, 五時は 여름을 주관하니 여름에는 輸穴을 刺針하고, 五音은 長夏를 주관하니 長夏에는 經穴을 刺針하고, 五味는 가을을 주관하니 가을에는 습穴을 刺針하여 하니, 이를 五變이 五輸穴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原文】

黃帝曰 諸原⁽¹⁾은 安合以致六輸⁽¹⁾오 岐伯이 曰原은 獨不應五時^{하오} 以經合之^{하야} 以應其數^라 故로 六六三十六輸^니이다

【校勘】

1) 六輸 : 『甲乙經』卷一第二에는 ‘五輸’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原 : 原穴을 지칭한다.

【校註】

[7] 諸原安合以致六輸

36) ○馬: 音은 主於長夏 故로 凡病在於音者는 必取五藏之經이니 如肝取中封하고 心取靈道之類라 ●景岳: 五音이 繁盛하니 氣應長夏하고 經穴도 正盛하야 亦應長夏라 故로 凡病在聲音者는 當取各經之經也라

37) ●太素: 秋時엔 萬物皆熟하고 衆味並盛 故로 五味主秋也라 습은 水也요 水는 冬也니 冬時엔 萬物收藏하야 如水之入海라 秋時엔 萬物收하니 而未藏而刺之者는 亦刺合微也라 ○張: 五味入口하야 藏於腸胃하고 陽明은 主秋金之氣하니 味主秋는 腸胃合秋收之氣也라

38) ○馬: 味는 主於秋 故로 凡病在於胃及飲食不節得病者는 必取五藏之合하니 如肝取曲泉하고 心取少海之類라 ●景岳: 五味成熟하야 以養五藏하니 其氣應秋하고 습穴氣斂하야 亦應乎秋라 故로 凡經滿而血者와 病在胃及因飲食內傷者는 當取各經之合也라 按本篇五時之刺以應五輸者는 謂冬刺井 春刺榮 夏刺輸 長夏刺經 秋刺合者는 以井應冬 榮應春 輸應夏 經應長夏 合應秋也요 如本輸四時氣水熱穴等論所載皆同하야 不可易者어는 考之六十五難에 曰井者東方春 合者北方冬也라하고 七十四難에 曰經言春刺井 夏刺榮 季夏刺俞 秋刺經 冬刺合이라하야 皆與本經으로 不合하니 必難經之誤也라 當以本經爲正하니 不可不辨이라

39) ○太素: 是萬物五變이 主五行輸也라 ○馬: 是之謂五變以主五輸니 所謂五五二十五輸以應五時也라 ○景岳: 五變이 各應五輸를 是謂五五二十五輸라 ●張: 此는 五藏之氣가 應五時之變하야 而取之五輸에 各有所主也라 春刺榮하고 夏刺輸하고 長夏刺經하고 秋刺合하고 冬刺井하니 皆從子以透發母氣라

太素馬景岳은 “이는 六腑의 原穴이 五時에 應하지 못하고 經에 合하여 비로소 三十六輸의 數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黃帝께서 五臟에는 原穴이 없고 六腑에는 原穴이 있어서 치료하려는 사람이 五輸에는 刺針하고 原穴에는 미치지 못하니 原穴과 五時は 어떻게 合하며 어떻게 六輸의 數를 충족하는가를 의심하신 것이다.”⁴⁰⁾라고 하였다.

[8] 原獨不應五時 以經合之 以應其數 故六六三十六輸

太素는 “六府는 陽에 속한다. 命門의 氣는 곧 腎間動氣니 五臟六腑와 十二經脈 및 生명의 근본이므로 原이라 이름 하였다. 三焦는 原氣의 또 다른 使令으로 原氣를 通行시키고 五臟六腑를 經營하므로 原이라는 것은 三焦의 尊稱이다. 五時와 상응하지 않고 陽經과 합하여 그 數가 상응하므로 六六三十六輸가 되는 것이다.”⁴¹⁾라고 하였고, 馬校釋은 “岐伯이 말하기를 井榮輸經合은 五時에 相合하나 오직 六腑의 原穴만은 五時에 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病을 치료할 때는 經穴으로써 原穴에 부합시키니, 예컨대 大腸經의 原穴은 合谷(大腸經의 經穴)을 取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六輸의 數에 상응하므로 六六三十六輸가 되고 六腑를 치료하는 方法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후세의 침구서에 ‘陽經의 俞穴은 原穴이 되고 陰經의 俞穴은 原穴과 병합하므로 原穴을 치료하는 것은 곧 俞穴을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제 이 節을 고찰해 보건대 經穴으로써 原穴의 치료를 대신하므로 후세에 俞穴으로써 原穴을 대신하는 것은 內經의

본래 뜻이 아니다.”⁴²⁾라고 하였고, 景岳은 “윗글에서 다만 五臟五輸가 五時에 상응하는 것만 말하였고 六腑의 原穴에 대하여 言及하지 않은 것은 대개 原穴은 經穴에 合하여 五時에 상응하지 않으니 長夏에 經穴을 刺針하면 原穴이 그 안에 있어서 그 數에 상응하는데, 이것이 곧 六腑의 六輸인 것이다. 생각건대 『本輸篇』에 기재된 六腑의 原穴이 『九針十二原篇』에는 바로 腧穴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難經·六十六難』에 ‘腧穴은 原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後世의 모든 鍼灸書籍이 그 이론을 추종하여 모두들 말하기를 陽經의 腧穴은 곧 原穴이므로 腧穴을 치료하는 것은 原穴을 치료하는 것이고, 陰經의 腧穴은 原穴과 병합하므로 原穴을 치료하는 것은 곧 腧穴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 節에는 ‘以經合之 以應其數’라고 말하였다. 그러한, 즉 經原腧 세 穴이 서로 이웃에 있으므로 經穴도 原穴을 대신할 수 있다.”⁴³⁾라고 하였고, 張은 “이는 六府가 五時에 應하는 것이다. 봄은 木을, 여름은 火를, 長夏는 土를, 가을은 火를, 겨울은 水를 주관하니 이는 五時가 五行에 合하는 것이고, 肝藏木 心藏火 脾藏土 肺藏金 腎藏水는 五臟이 五行에 合하는 것이고, 井主木 榮主火 水

40) ○太素: 五變合於五輸하니 原之一輸는 如何物合고 ●馬: 此는 言六府之原穴이 不應五時而以經合之하야 遂成三十六輸之數也라 帝疑五藏無原穴하고 六府有原穴하야 今治之者가 乃刺五俞而不及原하니 則諸原이 與五時何合하며 而何以足六輸之數라 ○景岳: 五藏五輸之外에 六府는 尙有原穴하니 是爲六數 故로 問其所合之義라

41) ○太素: 六府者는 陽也라 人之命門之氣는 乃是腎間動氣니 爲五藏六府와 十二經脈의 性命根이라 故로 名爲原이라 三焦者는 原氣之別使니 通行原之三氣하고 經營五藏六府 故로 原者는 三焦之尊稱也니 不應五時하고 與陽經으로 而合以應其數라 故로 有六六三十六輸也라

42) ●馬: 伯言井榮輸經合은 合于五時나 惟六府之原은 獨不應于五時라 故로 治病者는 以經穴合之하니 如大腸取合谷之類요 以應六輸之數 故로 六六三十六輸니 而治府之法이 在是矣라 按後世鍼灸書에 言陽經之俞는 卽爲原이요 陰經俞는 并於原이라 故로 治原은 卽所以治原라하야 今考此節하면 當以經穴治之하야 可以代原하니 則後世以俞穴代之者는 非經旨也라 ○校釋: 以經合之는 以經穴來包括原穴하니 卽以經穴로 代原穴爲用이라 此는 以五時分配井榮輸經合五種輸穴이어늘 六腑는 本有六俞하야 其中除上述五俞之外하고 尙有原穴이나 而原獨不應五時하니 所以將原穴合在經穴中이라 此時에 經穴과 原穴은 具有相同的屬性하야 以與五變相應이라

43) ○景岳: 上文에 止言五藏五輸以應五時하고 而不及六府之原者는 蓋原合於經하야 不復應時하니 如長夏之刺經하면 則原在其中하야 應其數矣니 是則六府之六輸也라 按本輸篇所載六府之原은 在九針十二原篇에 卽謂之腧라 故로 六十六難에 曰以腧爲原也라하니라 後世鍼灸諸書가 宗之하야 皆言陽經之腧卽爲原 故로 治腧卽所以治原하고 陰經之腧并于原 故로 治原卽所以治腧라하니 今此節에 云以經合之하야 以應其數라하니 然則經原腧三穴相隣하니 經亦可以代原矣라

主土 經主金 合主水는 五輸가 五行에 合하는 것이다. 六府는 原穴이 있기 때문에 五時에 應합하지 못하여 經穴과 原穴을 合하면 五行에 應합하여 六六三十六數에 應合하게 된다. 대개 木火土 金水는 地의 五行이니 五藏을 생성하고 地의 五行이 위로는 天의 六氣로 드러나서 六府에 부합된다. 六氣는 木火土金水火니 君火以明하고 相火以位하므로 六氣가운데 2개의 火가 있어서 六氣가 六府에 應합하고, 六府는 六數이므로 六六三十六數에 應합하고, 經火와 原火가 合해지면 또 五行의 數에 부합된다. 이것은 陰陽이 離合하는 이치요, 五行이 變化하는 氣요, 天地가 生成하는 妙用이다.⁴⁴⁾”고 하였고, 白話解는 “經은 하나 하나의 原穴이 소속된 本經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以經合之’는 곧 六腑의 病을 치료할 때 반드시 먼저 本經의 原穴을 取穴하여 치료해야 한다는 뜻이다.⁴⁵⁾”라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原穴은 무엇과 合하여 六輸가 이루어집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原穴은 홀로 五時에 應合하지 않고 經穴과 合하여 그 度數에 應하므로 六 곱하기 六하여 三十六輸가 되는 것입니다.

【原文】

黃帝曰 何謂藏主冬 時主夏 音主長夏 味主秋色

44) ○張: 此는 六府之應五時也라 春令木 夏令火 長夏主土 秋令金 冬令水하니 此는 五時之合于五行也요 肝藏木 心藏火 脾藏土 肺藏金 腎藏水하니 此는 五藏之合于五行也요 井主木 榮主火 俞主土 經主金 合主水하니 此는 五輸之合于五行也라 六府는 有原穴 故로 不應五時하야 以經與原合之하면 則合于五行하야 以應六六三十六之數矣라 蓋木火土金水는 地之五行也니 以生人之五藏하고 地之五行이 上呈天之六氣하야 以合人之六府라 六氣者는 木火土金水火也니 君火以明하고 相火以位라 是以로 六氣之中에 有二火하야 以六氣合六府하고 六府有六數라 故로 應六六三十六之數요 以經火與原火合之하면 則又合五行之數矣라 此는 陰陽離合之道요 五行變化之氣요 天地生成之妙用也라

45) ○白話解: 經은 是指每一原穴所屬의 本經이니 以經合之는 就是治療六腑의 病에 首先當取用 本經의 原穴爲主라

主春이요 願聞其故라노이다 岐伯이 曰病在藏者는 取之井라하고 病變于色者는 取之榮¹⁾라하고 病時間¹⁾時甚者는 取之輸라하고 病變于音者는 取之經라하고 經滿而血者는 病在胃라하고 及以飲食不節得病者는 取之於合²⁾이라 故로 命曰味主合이니 是謂五變³⁾也니라

【校勘】

- 1) 榮: 『甲乙』卷一第二에는 ‘營’으로 되어있다.
- 2) 取之於合: 『甲乙』卷一第二에는 ‘取之合’으로 되어있다.
- 3) 五變: 『類經』卷二十 第十七에는 ‘五病’으로 되어있다.

【字句解】

- (1) 間: 瘳也, 병나을 간.

【校註】

[9] 病在藏者 取之井

太素는 “井穴은 木穴이다. 井穴은 心下滿을 主治하는데 이는 肝이 滿한 것이다. 겨울철의 心下滿病에 그 井穴을 刺針하는 것은 그 根本을 남기려는 것이다.⁴⁶⁾”라고 하였고, 張은 “臟은 陰이며 裏이다. 腎은 裏를 다스리니 病이 臟에 있는 사람은 井穴을 取하여 冬臟의 氣를 排泄시켜야한다.⁴⁷⁾”라고 하였다.

[10] 病變于色者 取之榮

太素에는 “榮穴은 火穴이다. 榮穴은 身熱을 主治하는데 이는 心에 熱이 있는 것이다. 봄철의 身熱한 病에 榮穴을 刺針하는 것은 또한 그 根本을 남기려는 것이다.⁴⁸⁾”라고 하였고, 張은 “肝은 봄철에 應하고 붉은 色을 主管하므로 色에 變化가 있는 病者는 榮穴을 取한다.⁴⁹⁾”라고 하였다.

46) ○太素: 井은 木也니 井主心下滿은 是肝爲滿也라 冬時 心下滿病에 刺其井者는 遺其本也라

47) ○張: 藏者는 陰也며 裏也니 腎治於裏라 故로 病在藏者는 取之井하야 而洩冬藏之氣라

48) ○太素: 榮은 火也니 榮主身熱은 是心爲熱也라 春時身熱之病에 刺其榮者는 亦遺其本也라

49) ○張: 肝은 應春而主色이라 故로 病變于色者는 取之榮이라

[11] 病時間時甚者 取之輸

太素에는 “輸穴은 土穴이다. 輸穴은 體重節痛이 때로는 덜하고 때로는 심한 것을 主治하는데 이는 脾胃에 病이 있는 것이다. 여름철에 體重節痛이 때로는 덜하고 때로는 심한 症狀에 輸穴을 刺針하는 것은 또한 그 根本을 남기려는 것이다.⁵⁰⁾”라고 하였고, 張은 “病이 때로는 낮고 때로는甚한 것은 火가 動하는 形象이니 神이 變하는 것이므로 輸穴을 取한다.⁵¹⁾”라고 하였다.

[12] 病變于音者 取之經

太素에는 “經은 金이다. 金穴(經穴)은 喘咳와 寒熱往來 및 經의 血絡이 滿한 증상을 주치하는데 이는 肺에 病이 있는 것이다. 長夏에 喘息 咳嗽 寒熱往來 經血而滿한 증상에 그 經穴을 刺針하는 것은 또한 그 根本을 남기려는 것이다.⁵²⁾”라고 하였고, 張은 “脾는 土를 主管하고 그 (五行에 대응하는) 數는 五이며 그 音은 宮이고 宮은 五音에서 主된 音이기 때문에 病的 變化가 音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經穴을 取한다.⁵³⁾”라고 하였다.

[13] 經滿而血者 病在胃 及以飲食不節得病者 取之於合

太素에는 “合穴은 水穴이다. 合穴은 嘔逆과 洩瀉를 主治하는데 이는 腎에 病이 있는 것이다. 가을철에 飲食不節하고 嘔逆 泄瀉하는데 合穴을 刺針하는 것은 또한 그 根本을 남기려는 것이다.⁵⁴⁾”라고 하였고, 張은 “肺와 陽明은 秋金의 時令을 主管하기 때문에 飲이 胃로 들어가면 이로 肺로 보내지고 食氣가 胃로 들어가면 精이 脈으로 흘러넘치고 脈氣는 經으로 흐르고 經氣는

肺로 되돌아가니 肺에 모든 脈이 모이고 精을 皮毛로 보내어 皮毛와 脈이 精을 합하고 氣를 腑로 運行하여 四臟으로 通하니 이것이 胃로 들어간 飲食이 肺氣를 얻어(緣由하여) 通하고 調節하여 온몸으로 보내지고 퍼져 榮衛血脈을 생성한다. 그러므로 ‘經滿而血者’는 胃에 病이 발생한 것이고, ‘飲食不節者’는 肺氣가 제대로 轉輸하지 못하여 病이 된 것이다.⁵⁵⁾”라고 하였다.

【直譯】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을 藏主冬 時主夏 音主長夏 味主秋 色主春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岐伯이 답하길, 臟에 病이 있는 사람은 井穴을 取하고, 色이 변하는 病이 있는 사람은 榮穴을 取하고, 病이 때로 덜하고 때로 심한 사람은 輸穴을 取하고, 音이 변하는 病이 있는 사람은 經穴을 취하고, 經脈이 充滿하여 鬱血된 사람과 病이 胃에 있는 사람과 飲食不節하여 病이 난 사람은 合穴에서 취혈 하므로 ‘味主合’이라고 命名하니 이것을 五變이라 말합니다.

IV. 意 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모든 병이 처음에 발생할 때에 반드시 燥濕 寒暑 風雨의 六淫 外感과 陰陽失調 喜怒過多 飲食不節 居處不適 등의 內傷에서 일어나고, 邪氣가 體內에 侵入해서 病的 形態가 나타나고 臟에서 病이 되어 서로 다른 病名이 있는 것이니 내가 그 까닭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대부분 아침에 가볍고 낮에 편안하고 저녁에 증가하고 밤에 심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岐伯이 말하길, “四時의 기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0) ○太素: 輸는 土也니 輸主體重節痛時間時甚是 是脾胃病也라 夏時에 體重節痛이 時間時甚에 刺其輸者는 亦遺其本也라

51) ○張: 時間時甚者는 火之動象이니 神之變也라 故로 取之輸라

52) ○太素: 經은 金也요 金은 主喘欬寒熱 經血而滿하니 是肺爲病也라 長夏喘欬寒熱하고 經血而滿에 刺其經者는 亦遺其本也라

53) ○張: 脾主土요 其數五요 其音宮이니 宮은 爲五音之主音이라 故로 變於音者는 取之經이라

54) ○太素: 合은 水也니 合主逆氣而洩는 是腎爲病也라 秋時飲食不節하여 逆而洩에 刺其合者는 亦遺其本也라

55) ○張: 肺與陽明이 主秋金之令하니 飲入於胃하면 上輸於肺하고 食氣於胃하면 淫精於脈하고 脈氣流經하여 經氣歸於肺하니 肺朝百脈하고 輸精於皮毛하여 毛脈合精하고 行氣於府하여 而通於四臟하니 是入胃之飲食이 由肺氣通調輸布하여 而生此榮衛血脈이라 故로 經滿而血者는 病在胃요 飲食不節者는 肺氣不能轉輸而得病也라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四時의 氣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말하길 “봄에는 만물이 생하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간직하는 것이 氣의 常道입니다. 사람도 또한 여기에 조화하여 應하니 하루를 나누어서 사계절로 하면 아침은 봄이 되고 한 낮은 여름이 되고 해 질 무렵은 가을이 되고 한 밤은 겨울이 되며, 아침에는 사람의 氣가 생하기 시작하니 病氣가 衰하여 해 뜰 무렵에 몸이 가벼운 것이고 한 낮에는 사람의 氣가 成長하고 氣가 성장하면 邪氣를 勝하여 몸이 便安하고 저녁에는 人氣가 衰하기 시작하니 邪氣가 생하기 시작하며 밤에는 사람의 氣가 臟으로 들어가고 邪氣가 홀로 몸에 머물러서 病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위와 같이 그 때에 따르지 않는 病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岐伯이 말하길, “이처럼 四時의 氣에 應하지 않는 것은 臟이 홀로 그 病을 主管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장기가 不勝하는 때에는 病이 甚해지고, 勝하는 때에는 病이 나아집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의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自然界의 時氣變化에 따르면 病이 나아지기를 기약할 수 있으니 이에 따르는 사람은 정교한 醫師이고 거스르는 사람은 거칠고 대강 치료하는 醫師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좋습니다. 내가 듣기로 刺法에는 五變이 있으며 이는 五輸穴을 주로 삼는다하니 그 法則을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사람에는 五臟이 있고 臟에는 상응하는 色, 時, 日, 音, 味의 五種變化가 있고 五種變化마다 모두 井, 榮, 輸, 經, 合의 五種輸穴이 있어 그러므로 5 곱하기 5하여 25輸가 一年五시에 應하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五變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肝은 牡臟이 되니 그 색은 靑色이요 그 때는 春이요 그 음은 角이요 그味는 酸이요 그 日은 甲乙이며 (그 색은 五色중에서 靑色이요 그 時令은 春이요 그 음은 五音중에서 角이요 그味는 五味중에서

酸이요 그 一日의 天干은 甲乙이며), 心은 牡臟이 되니 그 色은 赤이요 그 때는 夏요 그 日은 丙丁이요 그 음은 徵이요 그味는 苦며, 脾는 牝臟이 되니 그 色은 黃이요 그 때는 長夏요 그 때는 戊己요 그 음은 宮이요 그味는 甘이며, 肺는 牝臟이 되니 그 色은 白이요 그 음은 商이요 그 때는 秋요 그 日은 庚申이요 그味는 辛이며, 腎은 牝臟이 되니 그 色은 黑이요 그 때는 冬이요 그 日은 壬癸요 그 음은 羽이요 그味는 鹹이니 이것이 五臟과 상응하는 五變이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五變이 五輸穴을 주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岐伯이 대답하길, “五臟은 겨울을 主管하니 겨울에는 각 經의 井穴을 刺針하고, 五色은 봄을 主管하니 봄에는 각 經의 榮穴을 刺針하고, 五時は 여름을 主管하니 여름에는 각 經의 俞穴을 刺針하고, 五音은 長夏를 主管하니 長夏에는 각 經의 經穴을 刺針하고, 五味는 가을을 主管하니 가을에는 각 經의 合穴을 刺針하니 이를 五變이 五輸를 나누어서 主管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原穴은 어디에 配合되어 六輸가 이루어지는가?” 岐伯이 대답하여 말하길, “原穴은 五時와 配合 되지 않고 소속하는 經穴이 그것을 配合되어 이로써 六俞의 數에 應하니 六 곱하기 六은 三十六俞가 됩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을 藏主冬 時主夏 音主長夏 味主秋 色主春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岐伯이 답하길, “五臟에 病이 있는 사람은 각 經의 井穴을 取하고, 氣色이 변하는 病이 있는 사람은 각 經의 榮穴을 取하고, 病이 때로 덜하고 때로 심한 사람은 각 經의 輸穴을 取하고, 聲音이 변하여 經脈이 滿하여 充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각 經의 經穴을 取하고, 病이 胃에 있고 飲食不節하여 病이 난 사람은 각 經의 合穴에서 그것을 취하니 그러므로 胃病은 飲食으로 말미암아 病이 발생하니 味主合이라 命名하고 이것은 五病의 針刺法則을 말한 것입니다.”

V. 考察 및 結論

2장의 “其音角 其味酸 其日甲乙” “其音商 其時秋 其日庚辛” 두 문장은 다른 臟의 五變 순서로 볼 때 錯簡으로 생각되며, 『甲乙經』을 근거하여 “其日甲乙 其音角 其味酸” “其時秋 其日庚辛 其音商”의 순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본다.

2장에는 五變을 “色, 時, 日, 音, 味”로 보았으나 3장에는 “臟, 色, 時, 音, 味”라 하여 내용상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校釋에는 증상의 변화를 두드러지게 표현한 3章의 내용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前者는 五臟의 五變을 생리적 측면에서 언급한 것으로, 後者는 “刺有五變以主五輸”에 대한 설명으로 5종의 病變에 대하여 치료할 五輸穴을 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刺法의 五變은 “臟, 色, 時, 音, 味”로, 五臟의 五變은 五臟 자체를 배속할 수 없으므로 五臟대신에 日辰의 五行變化를 추가하여 “色, 時, 日, 音, 味”로 제시한 것이다. 또 五臟도 치료할 대상의 범주에 속하므로 五輸穴과 五變의 배합에는 중복된 時日 중 日辰을 제외하고 五臟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2, 3장 어느 곳도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2장의 五變은 五臟 각각의 장기와 “色, 時, 日, 音, 味”와의 관계를, 3장 五變은 刺法名으로 病이 “五臟, 色澤, 時, 音, 味”에 있을 때 取穴할 五輸穴을 배속한 刺鍼原則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장 “冬刺井 … 春刺榮 … 夏刺輸 … 長夏刺經 … 秋刺合”의 내용이 『難經·七十四難』에는 “春刺井 夏刺榮 季夏刺輸 秋刺經 冬刺合”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楊上善은 “井穴의 미미함을 자침하는 것이다. …”고 하였고, 張志聰은 “子を 刺鍼하여 母氣를 드러내는 것이다.”고 하였고, 白話解에는 “五臟과 겨울은 閉藏을 주관하고, 井穴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겨울에 一陽이 시생함과 같으므로 冬刺井한다.”고 하여 계절의 특성과 五輸穴의 작용을 상응시켰다. 『難經』에는 “春刺井者 邪在肝”이라 하여 肝

木의 邪氣가 脾土를害하지 못하도록 井穴을 刺鍼하는 것이라고 하여 病治療의 측면에서 언급한 것이다. 반면에 『素問·熱穴論』에 “帝曰 冬取井榮何也? 岐伯曰 冬者 水始治 腎方閉 陽氣衰少 陰氣堅盛 巨陽伏沈 陽脈乃去 故取井以下陰逆 取榮以實陽氣.”라 하여 겨울에 井穴과 榮穴을 刺鍼하는 이유가 부족한 陽氣를 돋구어서 陰氣의 厥逆을 예방하고자 하였으므로, 本節은 楊張 등의 견해처럼 養生과 氣血調攝의 측면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장의 ‘以經合之’에 대하여 馬蒔는 “經穴으로 原穴을 대신해야지 후세의 鍼灸書籍에 輸穴로 原穴을 대신하는 것은 『內經』의 뜻이 아니다.”고 하였고, 校釋에는 “經穴과 原穴은 속성이 같다.”고 하였으나, 景岳은 “經原脈 세 穴이 서로 이웃하므로 經穴과 輸穴이 原穴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였다. 『靈樞·九鍼十二原篇』에 五臟의 原穴을 「本輸篇」의 輸穴에 해당하는 穴을 예시하여 前後篇이 不同하므로 누구의 견해가 옳은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장의 “病變于音者 取之經 經滿而血者 病在胃 及以飲食不節得病者 取之于合”은 앞 구절과 다르게 經滿而血者와 飲食不節得病者의 ‘者’字가 중복되며 의미도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語譯에는 『甲乙經』을 참고하여 “위 아래 ‘取之井’, ‘取之合’의 문장과 대조하여도 또한 맞지 않으므로 ‘病變于音 絡血而滿者 取之經’이라고 해야 비로소 문장에 맞게 된다.”라고 하였으나, 張志聰은 陽明燥金과 연관시켜 肺의 經脈과 陽明胃의 病이 연계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5가지 조항마다 ‘病’字로 시작하였으므로 ‘經滿而血者’를 後節에 포함시킨 장지총의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또 語譯의 견해처럼 “病變于音 經滿而血者 取之經”으로 고치면 전후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하지만 『難經·六十八難』에 “井主心下滿, 榮主身熱, 輸主體重節痛, 經主喘咳寒熱, 合主逆氣而泄, 此五臟六腑井榮輸經合所主病也”라고 하여 經穴과 合穴의 主治症으로도 전후문장과 연관성을 밝히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經滿而血者’ 5字는 衍文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장의 ‘五變’에 대하여 景岳은 ‘五病’이라고 원문을 고쳤으며, 語譯에 따르면 周本과 日刻本에도 ‘五病’으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2章의 五變에 대한 설명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3章의 내용이 “病在臟, 病變于色, …” 등으로 모두 病變을 예를 들어서 2章의 五變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景岳의 견해처럼 ‘五變’을 ‘五病’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본다.

VI. 參考文獻

1. 王冰撰,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2. 楊上善撰注, 蕭延平按, 黃帝內經太素, 出版社·年度未詳.
3.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4.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4.
5. 陳璧疏·鄭卓人, 靈樞經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6. 龐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81.
7. 丹波元簡, 靈樞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8. 黃元御, 靈樞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9.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10.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논장, 1990, 182.
11.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 醫經註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12.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3. 皇甫謐撰, 黃帝針灸甲乙經,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75.
14. 南京中醫學院中醫系編著,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黃帝內經靈樞譯釋, 1997.